「2022년 9급 시험대비」

기태국어 공무원 국어 사용 설명서(3)

| 권기태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5] 출제 키워드 5– 형태론 / 형태소의 구분

▣ 기출문제 유형

01.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02.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 형태소의 개념을 알고 문장의 형태소를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핵심 개념

1. 형태소의 개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최소의 유의적(有意的) 문법 단위]를 형태소(形態素)라고 한다. 조사, 접사, 어간,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므로 각각 개별적인 형태소가 된다.

2. 형태소의 구분

예) 철수가 물고기를 잡았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의미나 기능에 따라	

▣ 대표 기출문제

01.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 이다.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 이다.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형태소' 이다.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형태소' 이다.

[6] 출제 키워드 6– 형태론 / 품사의 구분

▣ 기출문제 유형

0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0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6 서울시 7급

⇒ 품사 구분의 기준을 알고 이에 따라 단어의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핵심 개념

1. 품사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 영수, 강아지, 책상...	
		대명사 ㉮ 나, 이것, 저기...	
		수사 ㉮ 일(一), 둘, 셋째...	
	수식언	관형사 ㉮ 그 책, 새 옷, 한 남자...	
		부사 ㉮ 가장 빠르다, 매우 빨리, 그리고...	
	독립언	감탄사 ㉮ 아, 이봐, 네...	
	관계언	조사	기타 ㉮ 이/가, 을/를, 은/는...
			서술격 조사 ㉮ 이다
가변어	용언	동사 ㉮ 가다, 먹다, 뜨다...	
		형용사 ㉮ 기쁘다, 달다, 푸르다...	

★ 용언의 활용

국어의 용언 (동사, 형용사)이 문장에서 쓰일 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때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活用)'이라고 한다.

2.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1) 의미

주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면 동사이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이다.

㉮ • 가다: 동작을 나타냄 → 동사
• 붉다: 성질을 나타냄 → 형용사

(2) 어미 결합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는–'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종결어미 ('–십시오', '–아라/–어라' 등), 청유형 종결어미 ('–십시다', '–자' 등)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 • 늙다: 늙– + –는– + –다(O) → 동사.
• 읽다: 읽– + –는(O) → 동사.
• 불쌍하다: 불쌍하– + –ㄴ– + –다(X) → 형용사.
• 걸맞다: 걸맞– + –는(X) → 형용사.

3. 관형사와 용언의 구분

(1) 관형사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어이며, 그 자체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다.

㉮
• 새 옷
• 헌 집
• 이 책
• 그 사람
• 저 집
• 갖은 양념
• 온갖 고난

(2) 용언

기본형이 있고, 다양한 어미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가변어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하여 뒤의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

㉮
• 먹을 것(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을...)
→ 용언 중, 동사.
• 이미 간 사람(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간...)
→ 용언 중, 동사.
• 흐르는 물(흐르다: 흐르고, 흐르니, 흘러서, 흐르는...)
→ 용언 중, 동사.
• 파란 하늘(파랗다: 파랗고, 파라니, 파래, 파란...)
→ 용언 중, 형용사.
• 새로운 소식(새롭다: 새롭고, 새로우니, 새로워, 새로운...)
→ 용언 중, 형용사.

※ 관형사형 전성어미(관형사형 어미, 관형형 어미)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미이다.

'–은/–ㄴ', '–는', '–을/–ㄹ' 등이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된 용언을 용언의 관형사형(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한다.

㉮
• 먹다: 어간 '먹–' + 관형사형 어미 '–는'
→ 먹는 물('먹는'이 '물'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가다: 어간 '가–' + 관형사형 어미 '–ㄹ'
→ 갈 사람('갈'이 '사람'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

'–다'를 붙인 기본형이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용언 중 동사나 형용사, 단어의 형태가 한 형태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관형사이다.

▣ 대표 기출문제

0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6 서울시 7급

① 잠이 모자라서 늘 피곤하다.
②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③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
④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

02. 〈보기〉의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6 기상직 9급

< 보기 >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또는 관형사 등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 긴 이불을 팔다.
㉡ 한 이불을 덮다.
㉢ 저 이불을 빨다.
㉣ 새 이불을 사다.

① ㉠ ② ㉡
③ ㉢ ④ ㉣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기획 NEWS www.gosiplan.com